**[마이더스 종영] 이민정 패션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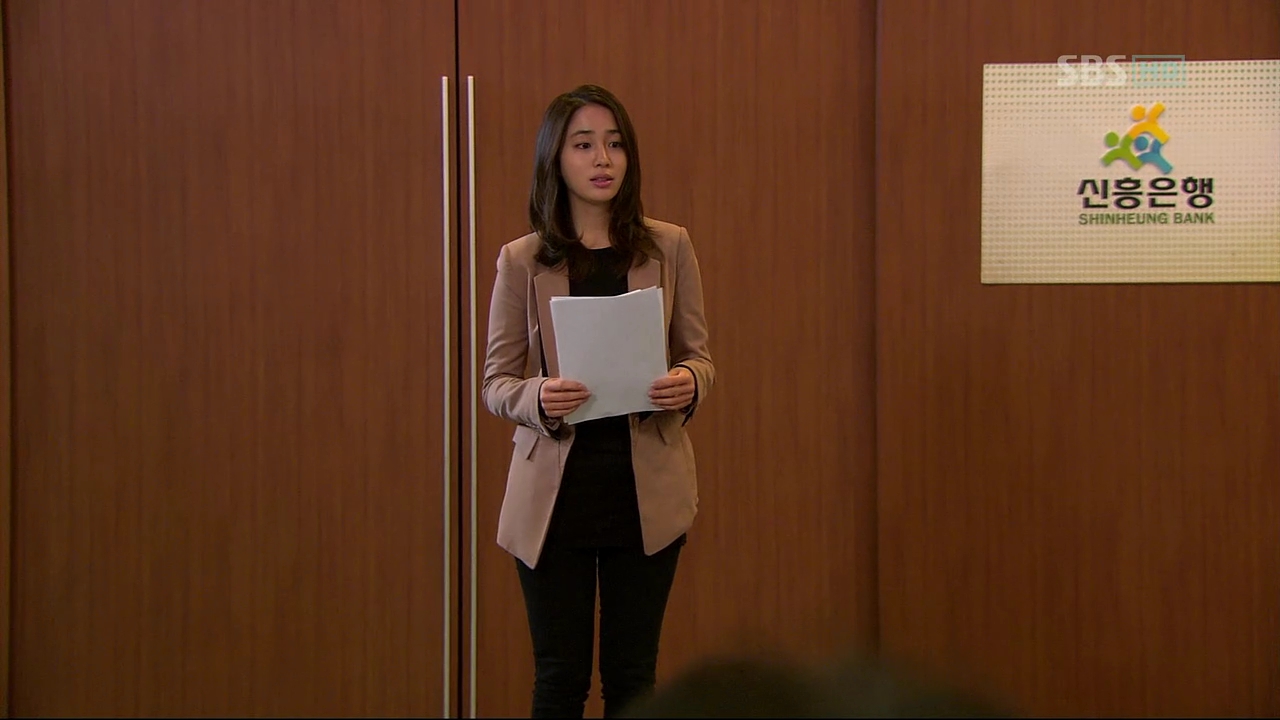
**이민정이 남긴 ‘클래식 룩’ 분석**

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마이더스`는 정연(이민정)과 도현(장혁)이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정연(이민정)은 극중 간호사 옷을 벗고 사채업자로 변신하며, 그 동안의 단아하고 캐쥬얼 스타일에서 클래식하고 세련된 오피스 룩으로 스타일 변신을 감행했다. 돈을 운용하는 캐릭터 변신은 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끌었고, 이와 더불어 트랜디하고 시크한 그녀의 스타일링은 드라마가 막을 내린 이 후에도 많은 여성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크하면서 클래식한 스타일링 연출로 변신을 거듭 후 그녀가 남긴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누드톤의 테일러드 자켓으로 클래식한 스타일링**



**[사진출처: SBS 드라마 마이더스 캡처]**

정연(이민정)이 클래식한 스타일링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아이템은 누드톤으로 핏하게 떨어지는 테일러드 재킷이다. 포멀한 디자인에 비비드하지 않은 누드톤 컬러로 시크하면서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했다.

지난주 19회 방송에서 그녀가 미팅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선보인 카이아크만의 인디핑크 재킷에 블랙 이너와 팬츠를 매치하여 톤다운 시켜주되 통일감 있는 스타일링으로 시크한 분위기를 살렸다. 이민정과 같이 재킷의 포인트가 되는 컬러 패치에 맞춰 이너와 팬츠를 스타일링하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소매 부분을 걷어 올려 연출을 하면 멋스러움을 더할 수 있다.

한편 정연(이민정)이 명준(노민우)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녀는 베이지 컬러를 바탕으로 블랙 패치가 포켓과 소매 부분에 포인트로 들어간 세련된 디자인의 커밍스텝 재킷을 선보였다. 그녀는 베이직하면서 지적인 오피스룩으로 심플한 스타일링을 완성했고, 여기에 재킷과 통일감을 주는 비슷한 컬러의 빅백을 매치하여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편안한 패션 감각을 선보였다.

**# 체인 백으로 화려하고 엣지있는 스타일링**



**[사진출처: SBS 드라마 마이더스 캡처]**

정연(이민정)은 베이직한 스타일링에 화려한 느낌의 체인 디테일이 들어간 숄더백을 매치하여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었다.

지난주 19회 방송에서 그녀는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여성스러운 느낌의 블랙 가죽 재킷에 데님 소재의 스텔라멕카트니의 체인 숄더백을 매치하여 캐쥬얼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이러한 체인백 스타일링은 포멀한 디자인으로 평범한 듯 보이지만 빈티지 캐주얼룩과 클래식룩, 어디에도 스타일링 매치가 가능하다.

한편 명준(노민우)의 병문안을 온 정연(이민정)은 클래식한 트위드 자켓에 세련된 스터드 장식이

들어간 모스키노 체인 숄더백을 착용하여 클래식하고 트랜디한 스타일링을 보여줬다.

이에 스텔라멕카트니 홍보 담당자 정유진씨는 “최근 ‘마이더스’에서 이민정씨가 깔끔하고 포멀한

디자인에 엣지를 더한 체인 디테일이 들어간 백 제품을 착용하면서 이에 따라 판매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며 “세련됨과 시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스타일은 워

너비 스타일로 드라마 종영 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 내에서 연기력 변신을 물론 패션에 있어서도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세련되고 트렌디

한 모습을 선보인 배우 이민정. 패션뿐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그녀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문의 apr agency

이시은 6911.0820 / 010.8720.4730